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손현동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Publication Trends in Smoking-Related Research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 Analysis of Korean Academic Journals

Hyun-Dong Son

Professor, Dept. of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이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 중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논문 선정, 분류 유목 결정, 평정지침서 작성, 논문 분석, 코딩, 코딩 결과 분석의 절차를 거쳤다. 분석대상은 2018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한 350편의 논문이며, 발표 연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는 1995부터 200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추세가 유지되었다. 주된 연구 대상은 일반 아동과 청소년이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관련 요인', '개입', '실태', '예방', '특성', '법과 정책', '척도', '개관과 이론'의 순이었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활용해 수집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점차 패널 데이터의 활용 사례가 늘고 있었다. 향후에는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질적 및 혼합 연구 방법을 포함한 균형 잡힌 연구 방법도 제안되었다.

주제어 : 흡연, 연구동향, 아동, 청소년, 학술지, 주제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ublication trend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moking-related researche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Three hundred fifty papers published until 2018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the publication year,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themes and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smoking-related research on children and adolescents increased sharply from 1995 to 2000, and the trend continued. The main research participants were general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hemes were 'Associated Factors,' 'Intervention,' 'Prevalence,' 'Prevention,' 'Characteristics,' 'Law and Policies,' 'Scales,' 'Review and Theories'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 was the quantitative method. Moreover, the most common data gathering method was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number of papers which used panel data was gradually increasing.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to explore a broader range of themes, and a balanced research approach was also recommended using both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Key Words : Smoking, Research trends, Children and adolescents, Academic journal, Content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yun-Dong Son (chamcoun@gnue.ac.kr)

Received December 12, 2018

Revised January 14,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최근 조사된 아동과 청소년의 전체 흡연율은 남학생이 9.5%, 여학생이 3.1%이다[1]. 이런 흡연율은 다행스럽게도 200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성인에게도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9세 이상의 흡연 남성 비율이 2005년에 51.7%이었는데, 2015년에 39.4%, 2016년에 40.7%, 2017년에는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2].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흡연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며[3], 아직도 흡연은 질병과 사망을 유발하여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흡연은 매년 전 세계의 7백만 명을 죽일 정도로 건강에 가장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4]. 흡연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신체건강 면에서 흡연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영향이며, 폐 기능 감소와 심혈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주고 폐암 유발 원인이 된다. 또한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흡연 아동과 청소년은 비흡연자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이 높았고,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의 비율이 높았다. 게다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흡연은 향후 니코틴 의존도를 높여 지속해서 흡연하게 되며,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신체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아동과 청소년기는 세포 및 조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발암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확률을 높인다.

이런 흡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물질(substance)을 접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감각적 만족 추구 경향과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흡연 행동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흡연 장면이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고, 담배 구입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흡연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행동을 예측하고 예방과 개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다. 특히 ‘초반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까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실태와 정책, 그리고 흡

연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연구의 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흡연 연구의 ‘성장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급격하게 연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연구 주제들도 다양하게 확대된다. 이 시기에 흡연 행동 예측을 위한 변인 연구뿐 아니라 예방과 개입 연구가 시작되어 그 수가 확대되었고, 척도나 흡연학생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들도 시작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흡연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 중독을 다루기 위한 학회와 전문학술지들도 발간되기 시작해 중독 연구의 급성장을 이끈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어서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흡연 연구의 ‘유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흡연관련 다양한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된 시기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교육, 심리(상담), 사회복지, 간호,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뤄져 왔다. 이에 여러 학술지에 발표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그간의 연구들이 흡연과 관련된 현실적인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방과 개입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균형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흡연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다룬 바 있으나 분석 범위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6], 간호 분야[7], 간접흡연[8]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나마 청소년의 흡연과 금연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던 연구[9]는 기간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로, 그리고 대상은 청소년으로 한정되었으며, 어떤 주제로 많이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들 중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흡연 관련 연구의 발자취를 돌아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분석 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추출하였다. 검색어는 ‘흡연/smoking’, ‘금연’, ‘니코틴’, ‘담배/cigarette’, ‘tobacco’와 ‘유아’, ‘아동’, ‘초등학생’, ‘초등학교’, ‘청소년’, ‘중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고등학교’라는 용어를 결합해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검색 시점인 2018년 10월 5일까지 검색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검색된 연구물 중 중복되지 않으면서 아동과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와 이에 해당되는 나이)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 아니지만(예, 흡연교육 담당자) 연구의 목표가 아동과 청소년 흡연에 대한 이해나 예방에 대한 내용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같은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와 포스터 발표, 그리고 잡지에 실린 연구들은 제외되었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연구 수는 350편이었다.

2.2 연구 절차

연구절차는 분석대상 논문 선정, 분류 유목 결정, 평정 지침서 작성, 논문 분석, 코딩, 코딩 결과 분석의 절차를 거쳤다.

첫째, 분석대상 논문 선정을 위한 과정은 우선 연구자가 위에 제시된 홈페이지를 이용해 논문제목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런 후, 논문제목, 발표 형태, 초록,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둘째, 분류 유목을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류 유목으로 사용한 발표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이였다.

셋째, 분류 유목별로 평정지침서를 제작하였다. 평정 지침서는 Kim[10]과 Son[11]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평정지침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넷째, 각 논문을 평정지침서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작업은 총 3명의 중독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평정과정은 우선 분석 대상 논문 중 10편의 논문을 무작위로 선정해 평정한 후 평정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하여 평정지침서를 상세하게 수정하였다. 그런 후 10편의 논문을 선정해 다시 평정하는 작업을 통해 평정자간 일치도가 90%가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 후 평정자 각자가 분석대상 논문 모두를 평정하였다. 분

석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 2명이 이상이 동일하게 평정한 경우에는 2명의 평정 결과를 따랐으며, 3명이 모두 불일치한 경우에는 3명의 평정자가 토론 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모든 과정은 중독상담 전공 교수의 점검을 받았다.

다섯째, 평정된 결과는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연구들(예, Kim[10], Buboltz, Miller, & Williams[12], Ryu[13])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각 연구마다 1이라는 점수를 부여하여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연구가 한 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빈도과약을 위해 1이라는 점수를 나누어 각 범주에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한 연구가 두 개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각각 0.5 점씩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코딩된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분석(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2.3 평정 지침서

우선 발표연도는 학술지에 기재된 발표 연도를 따랐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일반 아동·청소년과 고위험 아동·청소년,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일반 아동·청소년이란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의미한다. 고위험 아동·청소년이란 흡연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법행정기관 입소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아동·청소년, 흡연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타에는 교사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주제는 총 8개로 분류하였다. 1) ‘개관과 이론’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관련 현상, 이론을 소개하거나 검토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2) ‘실태’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 구매 경로, 흡연 동기, 흡연 관련 지식 및 대처 스타일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3) ‘특성’에는 흡연 아동과 청소년의 성격, 행동, 심리적 특징, 흡연을 시작하거나 금연 경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4) ‘척도’에는 흡연 관련 진단 도구를 개발하거나 검증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5) ‘관련 요인’은 흡연에 대한 예측 변인 및 결과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6) ‘예방’에는 흡연 예방 전략을 제안하거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7) ‘개입’은 흡연에 대한 개입 전략을 제안하거나 개입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포함됐다. 8) ‘법 & 정책’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연구방법은 3개로 분류하였다. 1) 질적연구는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를 말한다. 질적연구는 다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문헌연구와 인터뷰 연구로 구분하였다. 문헌연구는 분석 대상이 문헌이며, 특정 현상이나 이론에 대한 소개, 문헌고찰(통합적, 체계적, 내러티브, 키워드분석, 내용분석, 메타분석 등), 모형 기반 연구를 포함하였다. 인터뷰 연구는 기술기록과 면접관찰 결과를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으로 분석한 것(근거이론적 분석, 민속지학(문화기술지) 분석, 사례 분석, 합리적 질적 연구, 현상학적 분석, 사례연구 등)이 포함된다. 2) 양적연구는 양적 데이터를 사용해 기술통계나 추리통계를 사용한 연구가 해당된다. 이때 양적 데이터는 설문(survey), 실험 결과, 패널 데이터(횡단, 종단), 진단 검사로 구분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연구대상에게 배포한 후 수거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며, 실험 결과는 실험 전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참가자나 통제 집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패널 데이터는 국가 기관이나 정부 출연 기관에서 전 국민 또는 대단위 표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한 것을 의미하며, 특정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횡적, 여러 연도의 자료를 이용해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을 종단이라 하였다. 진단 검사는 진단 도구나 약품을 사용해 신체 내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합 연구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혼합해 사용한 연구를 말한다.

3. 연구 결과

3.1 연도별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관련 연구로 검색된 최초의 학술지 논문은 1967년에 발표되었으며[14],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Fig. 1 참조).

Table 1. Annual numbers of published papers

	'65-'6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4	'15-'18	Sum
n	1	2	2	9	26	86	82	81	61	350
%	0.3	0.6	0.6	2.6	7.4	24.6	23.4	23.1	17.4	100
M [†]	0.2	0.4	0.4	1.8	5.2	17.2	16.4	16.2	15.3	11

Note. M[†] : Mean value of 5 years (In case of '15-'18, mean value of 4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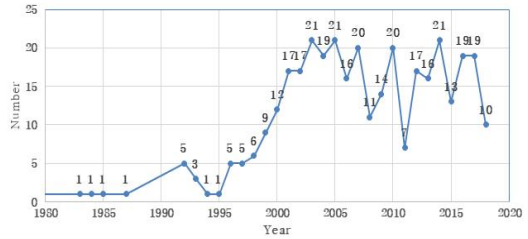


Fig. 1. The yearly trend of published papers

그리고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2000-2004년 사이이다. 이 시기에 총 86편(24.6%)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Table 1 참조). 2000년 이후 매년 편차는 있으나 5년 단위 평균 논문 수는 16-17편이며, 그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연구대상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의 주 대상은 일반학생으로 총 313편 중 234편(74.8%)이었으며, 고위험(23.0%), 기타(0.2%)의 순이었다(Table 2 참조). 그리고 일반 아동과 청소년 중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5.7%), 고등학생(22.4%), 중학생(10.7%)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2. Numbers of papers by participants

	General						High-risk			Others		Total
	K	E	M	H	MH	EMH	J	P	S	T	Mu	
n	10	27	33.5	70	80.5	13	5	2	65	5	2	313
%	3.2	8.6	10.7	22.4	25.7	4.2	1.6	0.6	20.8	1.6	0.6	100

Note. K: Kindergarten, E: Elementary school, M: Middle school, H: High school, MH: Middle and High school, EM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J: Judicial administrative facilities, P: Juvenile protection facilities, S: Smokers, T: Teachers, Mu: Multi-cultural

3.3 연구 주제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흡연 '관련 요인' 연구이었으며 (42.9%), '개입'(18.4%), '실태'(15.1%), '예방'(11.6%)의 순으로 많았다(Table 3 참조).

Table 3. Annual numbers of papers by research themes

Theme	'65-'6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4	'15-'18	Sum (%)
Review & Theory	0	0	0	0	0	0	1	3	3	7 (2.0)
Prevalence	0	1.5	1	4	7	16	12	6.5	5	53 (15.1)
Characteristics	0	0	0	0	1.5	5	3.5	3.5	3.5	17 (4.9)
Scales	0	0	0	0	1	3	0	1	2	7 (2.0)
Associated Factor	0	0.5	1	3.5	10.5	27	40.5	37.5	29.5	150 (42.9)
Prevention	0	0	0	0	1	11.5	11	9	8	40.5 (11.6)
Intervention	0	0	0	0	3	22.5	13	17	9	64.5 (18.4)
Law & Policies	1	0	0	1.5	2	1	1	3.5	1	11 (3.1)

‘법과 정책’ 연구가 가장 먼저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요인’ 연구와 ‘실태’ 연구가 198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해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Fig. 2 참조). 특히 ‘관련 요인’ 연구는 2005-2009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실태’ 연구는 2000-2004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이에 비해 ‘예방’과 ‘개입’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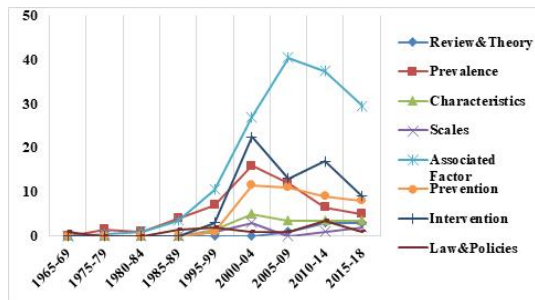


Fig. 2. The yearly trend of papers by research themes

3.4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85.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질적 연구가 14.3%, 혼합 연구가 0.6%이었다 (Table 4 참조). 양적 연구 중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실시한 경우(54.9%)가 가장 많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패널 데이터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 이용 건수는 더 확대되는 추세이다. 인터뷰를 이용한 질적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문헌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Table 4. Numbers of papers by method and data collection

Method	Data Collection	'65-'6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4	'15-'18	Sum (%)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1	0	0	2	2	5	9	7	10	36 (10.3)
	Interview	0	0	0	0	0	3	4	4	3	14 (4.0)
Quantitative	Survey	0	2	2	7	20	60	45	40	16	192 (54.9)
	Experiment	0	0	0	0	3	12	10	7	5	37 (10.6)
	Panel Data(C) ^a	0	0	0	0	0	1	7	13	24	45 (12.9)
	Panel Data(L) ^b	0	0	0	0	1	0	3	7	2	13 (3.7)
	Diagnostic Test	0	0	0	0	0	5	4	2	0	11 (3.1)
Mixed		0	0	0	0	0	0	0	1	1	2 (0.6)

Note. (C)^a: Cross-sectional, (L)^b: Longitudinal

4. 논의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술지에 발표된 350편의 논문을 추출한 후 발표 연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과 청소년 흡연 관련 학술지 논문은 1967년부터 게재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급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추세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함께 분석했던 연구[9], 간접흡연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했던 연구[8], 흡연과 금연관련 간호 연구동향을 분석했던 연구[7]에서도 유사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흡연 관련 연구가 많았던 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8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선정하였고,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도 2001년도를 청소년 금연운동의 해로 선포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청소년 흡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15세 이상 남자 흡연율이 1985년 61.5%에서 1990년 75.0%로 증가하고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이 44.8%로 치솟는 등 심각한 흡연율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예방과 개입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한 시점도 이런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에 의해서였다. 게다가 이런 동향은 국내의 다른 중독 관련 연구 동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8, 11, 15]. 이는 국내에서는 흡연 뿐 아니라 알코올과 물질 등 중독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관심이 급

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동향은 해외의 중독 연구수도 2000년대 초반의 증가세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16-17]. 이처럼 많은 사회적 관심과 금연 정책, 그리고 많은 예방과 개입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2007년과 2009년을 정점으로 청소년의 흡연율은 떨어지는 추세이다. 지금까지처럼 하락하는 흡연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흡연 관련 연구의 수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에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흡연 인구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3], 이것이 흡연에 대한 관심 하락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흡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흡연 연구는 2010년도에 가장 많았다는 연구[16]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 흡연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대상은 일반 아동과 청소년이 74.8%로인 반면, 고위험 아동과 청소년은 23.0%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연구대상이 일반 아동과 청소년으로 쏠리는 현상은 흡연 동향을 알아 보았던 연구들[7, 9]과 다른 중독 관련 연구[11]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반 아동과 청소년으로 연구대상이 쏠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구 표집이 용이한 것과 2003년부터 시작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청소년건강실태조사, 청소년안전(보호) 실태조사), 2005년부터 실시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004년부터 시작한 서울아동패널연구단의 서울아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관련 요인 연구와 예방 연구를 위해서는 일반 아동과 청소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에서의 위험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중독 분야 동향 연구에서 밝힌 것에 비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개입 연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연구대상으로 일반과 고위험 아동·청소년 간에 균형 있게 선택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흡연 아동과 청소년이나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입 연구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관련 요인’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관련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았던 것은 다른 흡연 관련 연구 동향연구에서는 주제와 관련

된 분석이 없어서 비교가 어려우나 다른 중독 분야 동향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적게는 50.7%에서 많게는 76.9%로 다른 주제에 비해 격차가 컸다. 이처럼 ‘관련 요인’ 연구가 많은 것은 연구자들이 예방과 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흡연 현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나 과정, 또는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구주제는 연구방법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설문지를 사용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들과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사용이 늘기 시작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합친 비중이 전체 연구의 71.5%일 정도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의 대부분이 관련 요인 연구인 점은 상대적으로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분석이 용이한 연구를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주제 동향은 해외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균형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18], 국내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중독 연구들에서는 치료 및 자활 연구, 사례 관리, 가족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등의 주제가 많았다는 것과 비교하면 향후에는 좀 더 균형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흡연 관련 연구는 다른 중독 분야에 비해 관련 요인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입 연구의 비율이 높았던 점은 이 연구 분야가 다른 중독 분야에 비해 앞서 개입과 예방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예방과 개입 관련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며 흡연과 관련된 경험이나 금연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 등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흡연은 예방이 중요하고 그 예방의 방법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연구들이 진행된 바가 있으나 향후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는 내용과 전달 방법의 효과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연구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가 85.1%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질적 연구에서도 문헌 고찰 연구를 제외하면 4.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의 편중 양상은 흡연 연구 동향 연구들[7,9]과 다른 중독 관련 연구 동향 연구들[10,11,13], 다른 학문 분야[19]에서 비슷하게 보고하고 있다. 질적 연구는 각 개인의 흡연과 금연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대해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론과 프로그

램 개발 연구에 꼭 필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체 흡연 관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성인까지 대상으로 포함됨, 그리고 학위논문까지 분석한다면 더욱 전체 흡연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성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에 맞게 차별화되어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국내의 다른 흡연 연구 동향이나 다른 중독 분야의 동향 연구들과 비교를 통해 흡연 연구의 현 위치를 가늠해 보려고 하였으나 해외 흡연 연구 동향과의 비교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해외 흡연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해외 연구 동향과 비교한다면 국내 연구의 현재 위치 파악과 향후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알아볼 뿐 자세하게 어떤 연구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각 주제별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즉, 연구 대상 모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분석 과정은 타당했는지 등에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남용 연구와 행위 중독 연구 [20-22] 동향과 흡연 연구 동향을 비교한다면 흡연 연구 동향의 특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The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Retrieved December 2, 2018, from <https://www.cdc.gov/survey/home.jsp>
-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The 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trieved December 2, 2018, from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1/sub01_05.jsp#s5_01_01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Monitoring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Geneva, Switzerland: Author.
- [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Tobacco. Retrieved December 6, 2018, from <http://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tobacco>
- [5] J. R. DiFranza, et al.. (2000). Initial symptoms of nicotine dependence in adolescents. *Tobacco Control*, 9(3), 313-319. <http://dx.doi.org/10.1136/tc.9.3.313>
- [6] S. J. Yang. (2008). An analysis of trends in smoking-related research.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2), 255-265.
- [7] S. R. Shin. (2006). Analysis of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related nursing research in Korea and its future dire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2), 415-425. <https://doi.org/10.4040/jkan.2006.36.2.415>
- [8] J. H. Cho. (2006). The status of researches on secondhand smoke: Focused on the health effects of secondhand smok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22, 86-96.
- [9] Y. S. Kim & B. R. Jeong. (2010). An analysis of articles related to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21(1), 53-62. <https://doi.org/10.12799/jkacn.2010.21.1.53>
- [10] E. S. Kim. (2017). The trends and issues of research on addiction for children in Korea: An analysis of journa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9), 485-516.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9.485>
- [11] H. D. Son. (2018). Trends and issues of adolescents' substance use and abuse research in Korea: An analysis of journa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3), 1-32.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23.411>
- [12] W. C. Buboltz Jr, M. Miller & D. J. Williams.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3 -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496-503. <http://dx.doi.org/10.1037/0022-0167.46.4.496>
- [13] J. A. Ryu. (2008). Research trends in internet game addiction of youth in Korea: Analysis of journal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1(1), 87-99.

- [14] H. G. Park. (1967). The social-politic consideration about youngmen's drinking and smoking.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10(8), 545-548.
- [15] E. S. Kim. (in press). Research trends in alcohol use and abuse of adolescents: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Asia Life Sciences*.
- [16] S. Helinski & R. Spanagel. (2011). Publication trends in addiction research. *Addiction Biology*, 16(4), 532-539. <https://doi.org/10.1111/j.1369-1600.2011.00388.x>
- [17] X. Sánchez-Carbonell, E. Guardiola, A. Bellés & M. Beranuy. (2005). European union scientific production on alcohol and drug misuse 1976 - 2000. *Addiction*, 100(8), 1166-1174.
- [18] J. H. Jang & K. H. Kim. (2009). Research trends in internet addiction in Korea and the West, and recommendation to future research: From 1996 to 2007.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6(4), 157-183.
- [19] H. J. Lee & Y. G. Kim. (2018). Research trends on burnout among social work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455-464.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455>
- [20] S. M. Jun. (2015).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learning activiti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Multiple and complex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8), 267-279. <https://doi.org/10.14400/JDC.2015.13.8.267>
- [21] J. Lim. (2017). Comparison of anger expression style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among male adolescent game users depending on the level of game addiction and eng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339 - 348.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339>
- [22] S. Y. Kim. (2017).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adaptation, self-esteem and self-control of university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103-111.

손 현 동(Son, Hyun-Dong)

[중신회원]



- 2004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자존감, 민감성, 중독, 심리극

· E-Mail : chamcoun@gnue.ac.kr